

## 12. 동기이론

### [수업을 위한 질문들]

1. 동기란 무엇인가?
2.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왜 父系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 1. 송의 동기이론

- 송의 동기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 주희(1130-1200)의 氣 관념

○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魂과 魄이 흩어집니까? 말씀하셨다. 진정 흩어진다. 또 물었다. 자손이 제사지내면서 느껴서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셨다. 자손은 반드시 祖先의 氣이다. 그 기는 비록 흩어지나 뿌리는 여전히 그 안에 있다. 誠과 敬을 다 하면 역시 氣를 여기에 불러서 모을 수 있다. 마치 물과 파도와 같아 뒤의 물은 앞의 물이 아니고, 뒤의 파도는 앞의 파도가 아니나 단지 하나의 물과 파도로 통한다. 자손의 氣와 祖先의 氣도 이와 같다. 그 氣는 바로 흩어지나 뿌리는 여전히 그 안에 있다. 뿌리가 여기에 있어서 그 氣를 여기에 끌어 모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설명하기 어려우니 단지 각자가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주자어류』 권3, 귀신)

- 주희의 비부계 관념

○ 왕덕보가 물었다. 祖考의 정신은 自家의 정신이기에 齋戒하고 제사하면 祖考가 와서 이룹니다. 만약 傍親 및 아들을 제사해도 역시 一氣이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 및 外親을 제사하는 데 이르면 그 정신은 親의 정신이 아닙니다. 어째서 여기서 心으로만 느끼고 氣로는 느끼지 못합니까? 말씀하셨다. '다만 제사한 바는 정신과 魂魄이 감통하지 않음이 없다. 대개 본래 하나의 근원에서 흘러 나왔으니 처음에는 간격이 없었다. 비록 천지와 산천의 귀신이라도 그렇다.' (주자어류, 권3, 귀신)

## 2. 14~16세기 동기이론

- 14~16세기의 동기이론을 살펴본다.

- 이색의 魂氣 관념

○ 무릇 墓는 體魄이 숨겨진 곳이다. 魂氣는 집으로 돌아오니 三虞로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家廟가 이미 폐하게 되면 정신이 周流하고 갈 곳이 없으면 자손에게 의지할 수 없다. 자손이 있는 곳이 신이 의지한 곳이다. 그러므로 朝夕으로 댕하고 제사하기를 집에서 하지 않고 들에서 하는 것이 또한 어찌 해롭겠는가' (동문선 권86, 贈金判事試後序)

- 남효온(1454-1492)의 귀신론

○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體魄은 땅으로 돌아가고 魂氣는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形이 있습니까? 鬼는 形이 없습니다. 聲이 있습니까? 鬼는 無聲입니다. 心이 있습니까? 鬼는 無心입니다. 無形, 無聲, 無心인데 그대는 誠을 다하면 흠향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흠향합니까? 氣가 흠향합니다. 氣가 흠향하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내 마음에 증험하여 압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귀신을 압니까? 氣가 모이면 사람이 되고 氣가 흠어지면 鬼가 되니 남과 나는 단일한 理입니다. 하물며 祖宗의 자손에 있어서는 혈떡이고 숨쉬는 것이 신상에 通하니 그곳과 이곳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손에게 感이 있으면 神明에 動이 있으니 분명하여 의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끈고 맑으며 부모를 다시 뵈는 듯한 誠으로 슬퍼하고 마음으로 깊게 생각하면 無形을 有形으로 만들 수 있으며, 無聲을 有聲으로 만들 수 있으며, 無心을 有心하게 할 수 있습니다.(『추강집』 권5, 論, 귀신론)

- 김무허여문기(1429)의 혈연의식

○ 나의 증조인 정경공 김사원(~1319)의 유서 내용에, '후손들이 자식이 없다고 대의를 돌보지 않고 구차히 정욕을 좋아 螟蛉子를 길러 아들로 삼고 골육지친을 남과 같이 보아 祖業으로 서로 전한 노비를 하루 아침에 가벼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또 利祿을 사모하여 노비를 권세가에게 뇌물로 주는 자가 있으면 孝順한 자손들이 관에 狀告하여 노비를 빼앗고 屬籍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라고 하신 유서이므로, 자손된 자는 반드시 지켜야겠기에 권말에 竝書하여 후손에게 보이는 것이니 무릇 나의 자손 중에

행여 자식 없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유념하여 祖宗의 遺訓을 잃지 않으면 큰 다행이겠다. (김무허여문기)

- 이계진(1548-1626)의 외손봉사 관념

○ 남자로 하여금 삼대를 받들어 제사를 輪行하고 여자는 비록 부모의 제사라도 지내지 말라. (중략) 하물며 婦人은 일을 專制함이 없어 자유하지 못하며 사위는 義合으로서 자기 귀신이 아니라고 제사하지 않으면 어찌 구차하게 습속을 좇아 非禮를 강행할 수 있겠는가? 여자는 집[시택]에 높일 바가 있어 비록 친정 부모를 제사할 수 없다고 해도, 外孫에 이르면 한 몸이 나뉘는 바이므로 만약 先祖를 제사하지 않으면 이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니, 內外孫을 논하지 말고 제사를 運行하되 자신에 이르러는 그쳐도 무방하다. (북봉세고, 북봉공유훈, 분깃)

- 이준경(1499~1572)의 同氣 관념

○ 지금 문득 아들이 없어 同宗의 자손을 취하여 후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養父]의 妾子가 嫡兄[養父를 지칭]의 繼後子를 同氣가 아니라고 하여 養父祖의 제사를 함부로 빼앗으면, 이는 親子와 繼後를 判別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동고유고 권7, 獻議, 奉祀議)

### 3. 16세기 이후 동기이론

- 16세기 이후 동기이론과 부계의식의 강화 현상을 살펴본다.

- 이황(1501~1570)의 편지

○ 다만 지금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이 있으면 私情에 견제되어 능히 끊고 大義로 立後하는 자가 드물고 심지어 외손으로 한 사당에 奉祀하여 두 성씨를 함께 제사합니다. 대저 하늘이 物을 낳으매 그로 인해 本이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 本이 둘이 되니 심히 불가합니다. 지금 사람이 혹 불행하여 그 외가의 祖先이 無後하고 처할 곳이 없으면 그 신주가 돌아갈 곳이 없음을 참지 못하여 權宜로 別所에 받들어 두고 왕래하며 奠을 올리고 살피는 것은 불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연히 그 本親과 같은 사당에서 함께 祭享하면 이치에 어그러짐이 막심합니다. 이른바 신은 예가 아니면

흠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러한 類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외손 봉사에 대한 질문에 감히 구차하게 풍속을 좇아 행함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퇴계선생문집 권39, 答鄭道可逋問目)

- 이원익(1547-1634)의 一氣相傳

○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손자는 하나의 氣가 서로 전하니, 살아서는 한집에서 살고자 하고 죽어서는 한 묘역에 묻히고자 한다. 이는 天理와 仁情의 지극함인데 세상 사람들은 풍수에 구애되어 조상이 묻힌 언덕에 자리를 잡지 않고 다른 곳에 자리를 잡는 사람이 많다. 만약 風水의 說이 믿을 만하다 해도 祖先을 버리고 복을 구하면 반드시 神이 돕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본디 아득하여 근거가 없는 것임에랴. 부자와 祖孫이 다른 산에 해골을 묻으면 죽어도 알 것이니 정녕 슬프지 않겠는가? (오리선생문집, 보유, 書示子孫)

- 황윤석(1729-1791)의 외손봉사 관념

○ 外孫 奉祀는 군자가 나무라니 神은 類가 아니면 흠향하지 않는다. 비록 外先으로 관계가 될지라도 마침내 제사를 지낼 것은 아니다. 淫祀와 얼마나 거리가 멀겠는가? (중략) 심지어 그 兄弟의 아들을 버리고 外孫을 후사로 삼는 자가 있는데, 이는 모두 禮經의 죄인이다. (이제난고 권15, 庚寅 6월 16일)

- 황윤석의 예화

○ 내가 듣기를 일찍이 한 宰臣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제사하면서 볼 적마다 용모가 아름다운 한 청년이 와서 그 아버지를 밀어 내고 밥을 덜어 갔다. 마음에 아무래도 이상해서 틈을 타서 은근히 아뢰니, 그 어미가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영남의 방백이 되어 내가 따라 길을 갈 때에 本營에 通引이 있었는데 나이 14세 쯤 되었고 용모가 빼어나 사랑할 만하여 婢처럼 가까이 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 방에 들어오게 하여 나도 모르게 정을 통하여 너를 임신하였다. 이 사람이 너의 진짜 아버지이니 지금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느냐? 血氣가 통하는 바 神理가 소멸하지 않았으니 너는 알아두거라'고 하였다. 宰臣은 이에 몰래 영남에 가서 그 묘를 찾아 옛날에 은혜를 입은 집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세상에서 閨門이 엄격하지 않은 자는 생각건대 이러한 類가 많을 것이다. 聖人이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치면서 父가 母보다 중하다고 말한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이제난고 권18, 辛卯 4월 11일 辛巳)